

광주 작가 11명 독일 뮌헨 White Box서 독일·한국현대미술전 **'All about korea'**

미술 역사가 시작된 곳에서 '광주 미술'을 보여준다

이이남·강운·김진화·최미연 등 작품 40여점 전시

광주지역 작가 11명이 미술의 역사가 시작된 유럽에서 전시회를 연다. 광주지역 작가들이 단채로 유럽에서 전시를 여는 것은 최초다.

19일 광주시립미술관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20~50대 작가 11명이 오는 4월 4~28일 독일 뮌헨 White Box에서 독일·한국현대미술전 'All about korea'를 연다.

이이남, 강운, 최재영, 서운경, 김상연, 김진화, 임남진, 정운화, 최미연, 신호윤씨의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40여점이 전시된다.

이미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로 발돋움한 이이남씨는 동양 고전병풍 5점을 디지털 병풍으로 구성, 정지된 과

거의 고전작품에 계절이라는 시간 개념을 적용한 '만화병풍'과 '미인도와 벨라스케스의 시녀' 등을 선보인다.

지난해 포스코 미술관에서 '물, 공기 그리고 꿈'전을 개최한 강운씨는 150호 이상의 '공기와 꿈' 시리즈 설치작품 4점으로 유럽시장을 노크한다.

최근 방콕에서 개인전을 여는 등 국제 무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조각가 신호윤씨는 이번 전시서 '수상한 꽃' 시리즈 1점과 '본질은 없다' 시리즈 '다비드' '비너스'를 선보인다.

제4기 시립미술관 중국 북경창작센터 입주 작가로 창작활동을 했던 김상연씨는 'Existance'를 독일로 가져간다. 김상연은 지난해 서울 마이클스츨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기도 했다.



최재영



신호윤

제16회 광주미술상과 지난 2008년 하정웅 청년작가상을 수상했던 김진화씨는 '밤으로의 여행' '오렌지 향기 날립' 등 설치작품 3점을 선보인다.

8년간 런던에 체류하면서 인체에 관한 작업에 집중하는 등 인간의 사랑과 보편적 감정을 표현해온 최재영씨와 독일에서 개인전을 열었던 정운화씨 그리고 최미연, 임남진씨 등이 함께한다.

광주 명예시민으로 지역 작가들 유

럽 미술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노력중인 독일 베를린 마이클스츨갤러리 마이클 슐츠 관장이 교량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클 슐츠 관장은 광주 출신의 서수경, 김유섭, 손봉재 등을 발굴해 국제적 스타작가로 발돋움하게 한 인물이다. 참여 작가와 전시 주제도 마이클 슐츠 관장이 뮌헨시와 함께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와 지난 2010년에는 독일작

가들이 광주를 찾아 전시를 열기도 했다.

시립미술관은 문화·역사·교통·금융의 중심지인 뮌헨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가 지역 작가들을 유럽시장에 알리면서 미술 작품 컬렉터들과 연결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독일은 미술 시장 침체기에 도 유럽에서 미술 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다.

광주시립미술관 관계자는 "세계 미술계의 벽을 넘어 우리 지역 미술을 알리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마이클 슐츠 관장의 광주에 대한 사랑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립미술관은 지역 작가들의 해외 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그동안 뉴욕 퀸즈미술관을 시작으로 중국 광저우, 북경 등에서 전시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강운 작 '공기와 꿈'

"문화재 현장 목소리 모아 정부 전달"

'전국문화정책포럼' 김종순 회장... 21~22일 보성서 워크숍

"현장에서 일하는 문화재 관련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모아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18일 문화재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9명

이 모여 만든 정책연구모임인 '전국문화재정책포럼' 김종순 회장(52·나주시 문화재팀장·사진)은 이 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그동안 복지와 지역 개발 업무 등에 가려 상대적으로 문

화재에 대한 관심이 덜했다"며 "포럼을 통해 문화재청과 정책적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돈독히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문화재정책포럼은 앞으로 ▲문화유산 보존관리 비전 제시 ▲문



지역 공무원들의 참여가 미진하지만 앞으로 꾸준한 홍보를 통해 참여 일자체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화재 정책 개선 방안 연구 ▲열린 토론 공간 마련 등의 일을 하게 된다.

그는 "아직은 서울, 경기, 전북 등 지역 문화재청의 지원이 부족하다"며 "이날 워크숍에서는 포럼의 설립 의의와 활동 방향,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등을 발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21~22일 이틀간 보성군 옛 보성여관(등록문화재 제132호)에서 전국문화재정책포럼 발족 기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포럼의 설립 의의와 활동 방향, 지자체 문화재 보존관리 현황 등을 발표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사례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뉴스의 눈'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27일~3월5일 신세계 갤러리

2013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이 27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나명주) 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일간지 사진가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80여 점이 전시된다.

올해 전시는 사진가들이 현장에서 취재하며 느낀 점들을 후기로 엮어 '보는 사진'이 아닌 '읽는 사진'으로 구성됐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비롯해 지난해 전국을 휩쓴 태풍 볼라벤과 덴빈의 상흔 등 사진가들이 발로 뛰며 만들어낸 기록들이 인상적이다. 이와 함께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을 기념해 지난 1년 동안 신문지면에 보도됐던 무등산의 사계(四季)도 기획전시한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나명주 회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사진가들이 탐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물"이라며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가들의 열정을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순회전시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다음달 7일부터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진행된다.

한편 매년 보도사진전과 함께 진행되는 제8회 '박경완 기자상'은 나로호 발사 순간을 취재·보도한 광주매일신문 김애리 기자에게 돌아갔다. 박경완 기자상은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됐다. 시상식은 27일 전시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문의 062-360-16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련·오지호' 출간



광주지역 근현대미술 1세대인 허백련과 오지호의 미술세계와 발자취를 기록한 평전이 출간됐다.

김종 광주문화원연합회장과 정인서 시민소리 편집국장이 펴낸 '무등산이 된 화가 허백련·오지호'.

저자는 허백련 '현대 회화에 전통의 텃밭을 일구다', 오지호 '빛을 그린 우리 시대의 화가'라는 부제를 붙였다. 허백련이 중국화와 일본화의 경계를 넘어 사의(寫意)적 관점을 지닌 마지

막 남종화가로 한국의 자연을 관념 산수로 빚어냈다면 오지호는 서양화와 일본화의 영역을 넘어 사실성을 투입한 한국의 빛을 재현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은 두 작가가 서로 다른 장르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중시하고 한국의 풍광과 정신을 독자적인 방법으로 연마하면서 후학을 양성했다는 점 등에서 동일시된다고 설명한다.

집필을 위해 허백련과 오지호에 관한 신문자료, 지역향토사전 등 기록을 정리하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오류를 수정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은 저자들의 노력이 엿보인다.

<한국문화원연합회광주시지회> 1만5000원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한국화·서예·미디어... 다양한 장르 탐색

광주미협 21일부터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김효삼 '포근한 가을'

한국미협 광주시지회가 2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전시실에서 '2013 한국미협 광주시지회 회원전'을 갖는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와 신진 작가 등 미협 회원 22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에서는 서양화, 한국화, 공예, 판화,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참여작가는 강남구·이인호·김수정·고경숙·강영하·강기욱·강봉림·김재현씨 등이다.

21~27일에는 서양화·수채화·조각 작품이 전시되고, 28~3월6일에는 서예·문인화 전시가 진행된다. 3월 7~13일에는 마지막 전시로 한국화·공예·디자인·판화·미디어 작품이 관람객을 찾아가는. 문의 062-222-3757.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최현배 기자 '뚜벅이'에 마을의 목동'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